

기업공시제도
현장간담회

2016.5.25(水) 10:30
한국거래소 대회의실

금융위원장님 모두말씀

2016. 5. 25

금 융 위 원 회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 말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기업공시 관계자 분들과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새롭게 오픈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의 개발과

이번 행사의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Korea-Checking, Linking, Integrating system for Corporate disclosure

< 기업공시 제도개선 노력 >

기업공시 제도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정확하게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본시장의 인프라입니다.

특히,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상황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기업과 투자자간 소통의 채널로서 공시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Full, fair and timely disclosure)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시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는 포괄주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소위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한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진행률과 미청구공사 잔액 등 회계처리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에게 필요한 공시는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불필요한 공시 의무를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거래소에 유사한 내용을 중복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공시항목을 정비하였고,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으로 기업의 작성·배포 부담이 상당하던 투자설명서의 기재 사항을 대폭 줄인 핵심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K-CLIC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 >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공시 현장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공시종합지원시스템 “K-CLIC”의 출범일 것입니다.

기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면서도
공시 작성업무에 대한 기업의 부담·비용은
줄이기 위해 개발된 K-CLIC 시스템은

작년 12월 1단계 개시로

공시담당자가 공시업무 관련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한데 이어,

이제는 자료만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공시정보가 생성되고 제출까지 되는
진정한 의미의 **One-stop**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업의 정보생산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보다 적시성 있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맺음 말씀 >

작년 5월 현장간담회 이후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귀한 시간을 내어달라 부탁드린 것은
지금까지의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올바르게 정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듣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K-CLIC 시스템을 체험해보시고,
다른 공시제도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